

완도군, ‘국제슬로시티연맹 시장 총회’ 6월 19일 개최

미국, 프랑스, 스페인 등 11개국 참가, 슬로시티 발전 방안 모색

아시아 최초의 슬로시티인 전남 완도군에서 6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슬로시티와 해양치유’를 주제로 「2025 국제슬로시티연맹 시장 총회」가 개최된다.

국제슬로시티연맹은 전통과 자연을 보전하면서 ‘느림의 삶’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목표로 33개국이 가입돼 있으며, 총회는 도시 간 슬로시티 철학과 가치, 정책 공유 및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되고 있다.

이번 총회에는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11개국, 174명의 슬로시티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총회는 완도해양치유센터와 해변공원, 청산면 등에서 ▲국가별 네트워크 동향과 이슈 발표 ▲회원 도시 정책 발표 ▲해양치유와 숲 치유 체험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 청산도 투어 등이 진행된다.

군은 총회 개최를 통해 국제슬로시티 도시 간 협력은 물론 군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국내외 참가자 유입에 따른 관광, 숙박 등 지역 상권의 실질적인 경제적 파급효과와 해양자원을 활용해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완도군 역점 사업인 ‘해양치유’가 국제 무대에서 조명받게 될 전망이다. 또한 슬로우 장터(슬로시티 특산품 판매관) 운영, 해양치유·국제해조류박람회 홍보, 버스킹 공연, 장보고 옷장 등 주민들의 국제 행사 참여로 공동체 의식 및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군은 총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지난 5월 30일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프로그램별 준비 상황 및 통역, 교통, 홍보 등 추진 계획을 점검했다.



총회 기간 중 6월 21일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해변공원 일원을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할 계획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앞으로도 슬로시티 정신을 잘 실천하고 해양치유를 비롯한 완도만의 차별화된 정책, 웰니스 관광 도시 건설 등을 추진하여 완도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슬로시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은 고유의 전통과 문화, 청정 자연을 잘 보존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 받아 2007년 청산도가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로 지정됐으며, 2018년도에는 세 번째 인증과 함께 군 전역이 슬로시티로 지정됐다.

2023년에는 ‘국제 슬로시티 우수 사례 콘테스트’에서 완도의 청정한 자연환경과 해양자원을 이용하여 몸과 마음을 자유하



함평군-전남도, ‘함평 미래 지역발전 비전 2.0’ 추진 협력 17개 사업 추진 현황 점검 및 대응책 모색

전남 함평군이 전남도와 힘을 합쳐 ‘함평 미래 지역발전 비전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함평군은 10일 “이상의 함평군수가 지난 9일 전남도청 VIP실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만나 ‘함평 미래 지역발전 비전사업’의 추진 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실행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김영록 도지사와 이상의 함평군수를 비롯한 도·군 관계자, 오민수 함평군 사회단체협의회장이 참석해 사업 추진 경과와 문제점, 지역민 의견 등을 공유하며 사업 추진 의지를 다졌다.

‘함평 미래 지역발전 비전사업’은 지역소멸 극복과 서남권 대도약을 목표한 함평군과 전남도가 2023년 9월 5일 공동 발표한 대규모 전략 사업으로, 총 1조 8,409억 원 규모의 17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무엇보다도 비전사업은 함평군의 중장기 성장을 견인할 핵심 프로젝트로 주목받고 있으며, 현재는 전략 수립과 행정절차 이행 등 기반 조성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다만, 대규모 사업 특성상 가시적인 변화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발

표로부터 1년 9개월이 지난 현재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속도감 있는 추진’과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 등 실질적 성과를 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이상의 함평군수는 회의에서 ▲미래 융복합 첨단 신도시 조성 ▲글로벌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유치 ▲AI 기반 첨단 축산업 융복합 밸리 조성 등 사업 추진 현황과 문제점을 설명하고 군민의 요구를 반영한 실행 방안을 전남도에 건의했다.

특히, 이 군수는 “기존 사업만으로는 장기적인 성장 기반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지역민의 의견을 반영해 ▲100만 평 규모의 RE100 국가산업단지 조성 ▲68만 평 배후 스마트시티 개발 등 에너지 전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산업 생태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RE100 국가산업단 배후 스마트시티 등 함평군 건의 사항을 전남도 시책 사업에 반영할 것을 약속하겠다”며 “함평을 원도심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등 지역 현안 사업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함평/전광춘 기자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전남관광재단과 함께 일(work)과 휴식(vacation)을 결합한 ‘전남 블루위케이션’ 사업을 6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고흥형 전남 블루위케이션 사업은 마리안느 마가렛 나눔연수원을 거점으로 참가자를 맞이한다. 기업, 공공기관, 1인 사업자, 디지털노마드 등을 대상으로 하며, 업무와 힐링을 동시에 누릴 기회를 제공한

고흥에서 일과 쉼을 동시에! ‘블루위케이션’ 6월부터 운영

고흥에서 즐기는 work+vaction의 새로운 경험

다. 참가자에게는 체류 기간에 따라 2박 3일 기준 20만 원, 3박 4일 기준 최대 30만 원까지 인센티브가 지원되며, ▲위케이션 패스 제공(식사&카페 이용권, 커피 농장 체험, 숲 치유 프로그램 등) ▲쏘카(SOCAR) 쿠폰 제공 ▲여행자 보험 가입 ▲웰컴키트 제공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참여 신청은 전남관광재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청정한 공기와 바다, 숲이 어우러진 고

흥은 자연 속에서 업무와 휴식을 모두 누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으로, 참가자들에게 색다른 위케이션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고흥은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일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라며 “이번 블루위케이션을 통해 고흥의 매력을 많은 이들이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흥/박도일 기자

장흥군은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한 ‘2025년 전남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선정으로 장흥군은 2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확보한 사업비는 옛 장흥교도소에 지역 문화자원을 기반으로 관광·교육이 결합된 ‘문학강생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문학강생 프로젝트는 장흥이 보유한 풍부한 문학 자산과 (옛)장흥교도소라는 공간의 역사적 상징성을 융합한 장흥군만의 독창적인 문학관광 콘텐츠다.

장흥군, ‘2025년 전남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공모 선정

옛 장흥교도소에 미디어아트 등 문학·관광 융복합 콘텐츠 구축

군은 옛 장흥교도소 내 옛 취사장을 활용해 ‘문학·힐링·자유·사색’을 주제로 한 미디어아트 전시공간 2개소를 조성할 예정이다.

미디어아트 전시공간에는 과거의 어둠이 깃든 공간에서 빛과 언어, 이미지로 재탄생한 장흥 문학의 정수와 아름다움을 담아낼 계획이다.

또한 장흥군은 도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1박 2일 북캠프도 오는 10월 중 개최한다.

이 행사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문학의 치유적 가치와 자유의 의미를 함께 사유하며, 문학적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획됐다.

청소년들의 1박2일의 기록과 에피소드를 담은 내용은 다큐멘터리 영상으로 제작되어, 교육적 활용도와 콘텐츠 확장성

을 함께 도모한다.

장흥군은 이번 북캠프 운영을 연차적 프로그램으로 정례화하여 청소년들이 문학과 예술을 통해 자기 성장과 창의적 사고를 함양하는 인문교육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이번 문학강생 프로젝트는 장흥군이 보유한 문학적 자산과 교도소라는 공간의 사회적 가치를 예술로 치유하고 재생하는 뜻깊은 시도”라며, “이번 프로젝트가 장흥을 문학 치유와 인문 여행의 중심지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흥군 제공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오는 26일 오후 2시 화순군 청년센터(청춘들락)미디어공작소에서 화순군민을 대상으로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단편 영화 제작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AI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는 초보자도 참여할 수 있으며,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하여 스토리 구성부터 영상 편집까지 활용 없이 영화를 제작하는 전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실습 중심의 교육

미디어공작소 당신의 상상, AI로 영화가 됩니다!

생성형 AI 프로그램 활용한 나만의 독창적인 영화 만들기 교육

이다.

또한, 교육생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제 영화로 구현할 수 있도록 교육 기간 중 유료 프로그램인 미드저니와 클립 AI를 제공할 예정이다.

수업 신청의 자격조건은 화순군민이라

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70%는 청년을 우선 선발하고 나머지 30%는 중장년층을 선발할 예정이다.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등본 또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오는 6월 24일까지 화순군 청년센터

를 방문하거나 공식 홈페이지(https://www.hwasun.go.kr/youth)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조미화 인구청년정책과장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단편 영화 제작 교육을 통해 화순군민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제 영화로 구현하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어보는 소중한 경험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화순/김종환 기자

보성군, 직장인 대상 ‘바른 자세 교정 운동 교실’ 운영

보성군은 관내 직장인을 대상으로 ‘의료600 바른 자세 교정 운동 교실’을 운영하며 직장인들의 일상생활 속 건강관리 습관 정착은 물론 건강 위험 요소인 거북목 증후군 예방을 위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다.

이번 프로그램은 건강생활실천 사업의 일환으로 스마트폰과 PC 사용 시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직장인들의 경부 통증과 척추 불균형 등 근골격계 질환 발생률이 높아짐에 따라 올바른 자세 습관과 신체 건강 자가관리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스마트폰 및 PC 사용 증가로 인해 경부 통증과 척추 불균형 등

근골격계 질환에 노출되기 쉬운 직장인들을 위해 마련된 건강생활실천 사업의 일환이다. 일상 속 잘못된 자세로부터 발생하는 건강 위험 요소를 줄이고,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키워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보성군보건소는 사전 신청자 중 건강고위험군 35명을 선발해 총 8회기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인바디 검사, 리얼피티 검사, 사전 건강 설문조사 등을 통해 개별 신체 상태를 분석하고, 전문 운동 지도사가 개인 맞춤형 자세 교정 해결책을 제공할 예정이다.

보성/김운기 기자

이 작품은 국민 김라온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4 정부광고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 수상작

독서로 찾는
강력하고 건강한
도파민

저를 찾고 있는 것일지도
최대한 담백하게 사는 것
내가 창조하는 삶을 살아갈 것
지금처럼 버티다 보면 이 순간이
힘들수록 나 자신을 사랑할 것
해탈 같은
나의 가치를 내가 찾을 것
특별함을당신이 생각하는 것 보다
예쁘다고 다 끌리는 게 아니고
마음먹기에 그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느껴진다.
우리는 몇 장짜리 책일까
기억스레 생각
평범함의
정말이다. 공전으로 맞물려
마음이 편해진다면
몇 장이나 될까,
현재의 미래와 걸려낼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평화적인 훨씬 강하다는 것
고유의 색을 가능 하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미래의 현재가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되면
기회는 위기 속에서 찾아온다는 걸
엔 다 잘될 테니까내가
그 자체만으로도
좋은 거라면
은 언제나 우연치

책감치럼
타성에 젖지 않을 것.
미련을 남기지 않는 것
늘 그렇듯, 늘 주의를 기울일 것
알리고 싶은
포기하지 않고 잘 버티내고 있다는 것과
나보다 원한 사람을 만나고 기뻐지
내가 나를 알아봐 줄 것
코자 볼 수 있는 것이니까
너의 우주와
소중함을
좋은 생각으로 나를 채울 것
누가 뭐라고 해도 정말행복
기억할 것.
잠시
리우고
평범한 것은
가득한 사람,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되면
만 것
평화
그
고
언제나 우연치

독서는 우리의 문해력과 사고력을
키워주는 큰 자산입니다.
책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진정한 '나'를 만듭니다.
소셜 미디어와 숏폼에서 얻은
일시적인 자극 대신,
독서라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극을 선택해 보세요.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